

7 줄고사리

Nephrolepis cordifolia (L.) C. Presl

줄고사리과 Nephrolepidaceae



물 주기
주 2~3회



햇빛 요건
그늘진 곳



토양 요건
잘 배수된 흙
약간 산성 토양



독성
사람에게
유독함

국내 분포

- 제주도 바닷가의 햇빛이 드는 나무줄기 위에서 자람

수형

- 상록성 지생 혹은 착생 양치식물로 키 30~100cm 정도로 자람

특징

- 앞은 기다란 깃털 모양으로 90cm까지 자랄 수 있고, 광택이 있다. 포자가 생산되는 주머니는 앞 뒷면에 점점이 붙는다.

포름알데히드 제거능

'24년도 실험 결과

- 스킨답서스 80%, 줄고사리 95%로, 줄고사리가 포름알데히드 제거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.
- ※ 실험 시기에 따라 다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실내 관리

- 햇볕이 강하게 들지 않고 약간 그늘진 곳에 두고 가꾼다. 주간엔 인공조명이 켜진 실내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, 식물생장등을 켜주면 생장에 도움이 된다.
- 물은 주 2~3회 간격으로 주되, 계절별로 횟수를 줄이거나 늘린다.
- 특별한 병충해는 없으나 간혹 식물 분양 전부터 기생하던 깍지벌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 전 깍지벌레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, 깍지벌레가 발생하면 가정용 깍지벌레 방제약을 사용한다.

증식

영양번식으로 쉽게 증식이 가능하다.

- 포기나누기: 봄~초여름 경, 뿌리와 뿌리줄기가 충분히 자란 개체를 나누어 심는다.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나눈 포기는 습윤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정식한다.
- 덩이줄기 번식: 줄고사리는 뿌리줄기를 따라 둥글고 단단한 덩이줄기가 형성되며, 이를 손으로 분리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떼 낸다. 분리한 덩이줄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고 습윤하게 관리하면, 8주 이내에 새싹이 발아하며 새로운 개체로 성장한다.
- 포복경 번식: 지상에서 길게 자라는 포복줄기를 절단하여 증식할 수 있다. 생장점이 포함된 부위를 중심으로 좌우로 절단한 후,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 심고 습도를 유지하면 수 주 내에 뿌리가 나 독립된 개체로 자란다.

작성



책임운영기관
환경부
국립생물자원관